

# 제주의 하늘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인 제주도. 제주와 육지와 이어주는 것은 하늘길이다. 많은 비행기들이 오고가는 제주국제공항은 제주에서 첫 걸음을 떼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공항로** | 제주시 용담2동 1596-6 ~ 제주시 용담2동 1760-1(약 0.8km)

**월성로** | 제주시 용담2동 746-7 ~ 제주시 용담2동 2754-1(약 0.4km)

**명신1길** | 제주시 용담2동 2786 ~ 제주시 용담2동 1647(약 0.4km)

**한천로** | 제주시 용담2동 2621-26 ~ 제주시 용담1동 189-3(약 0.7km)

**오라로** | 제주시 오라3동 2547-2 ~ 제주시 오라2동 1083-2(약 1.6km)

**월구길** | 제주시 오라3동 2574-1 ~ 제주시 오라3동 2334-5(약 0.4km)

**동성길** | 제주시 오라3동 2401-9 ~ 제주시 오라3동 2140-7(약 0.9km)

**사평2길** | 제주시 오라2동 2179-1 ~ 제주시 오라2동 1971-1(약 0.7km)

**연미길** | 제주시 오라3동 2107-5 ~ 제주시 오라3동 2964-1(약 1.1km)

## 공항로 | 제주국제공항

공항로는 제주의 하늘길인 제주국제공항으로 향하는 길이다. **공항로** 양쪽으로 늘어선 야지수들의 이국적인 풍경은 제주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는 설렘을, 떠날 때는 아쉬운 마음이 들게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인 제주도는 일 년에 천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이 다녀간다. 그런 제주를 외부와 이어주는 중요한 교통수단이 비행기이다. 제주국제공항 자리는 과거에 넓은 들판이었다. 그래서 이곳을 들판이라는 뜻으로 정뜨르라 불렀다. 마을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며 살던 정뜨르는 일제강점기 때 군사비행장이 들어서면서 비행장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해방이 되고나서 본격적으로 민간항공기가 취항하기 시작했고, 제주와 육지를 잇는 공항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제주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은 제주의 근현대사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던 현장이기도 하다. 4·3 사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억울하게 희생되기도 했고, 6·25전쟁 때는 포로수용소가 설치되기도 했다. 제주도가 신흥여행과 수학여행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공항의 규모는 점점 커졌다. 공항을 확장하기 위해 그곳에 살던 마을 사람들은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터전을 잃고 떠나야 하는 처지가 되기도 했다. 그렇게 고향을 뜬 사람들은 공항 주변에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 옛 전통을 이어왔다. 최근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제주의 자연유산이 등재되면서 제주도는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래서 제주국제공항은 제주를 찾는 사람들로 항상 북적인다. 하늘길을 따라 제주와 육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제주국제공항은 오늘도 제주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 월성로/명신1길 | 월성마을과 명신마을

공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먹돌세기 또는 먹돌생이라 불리는 곳이 있다. 먹돌세기는 검은 색을 띠는 바위와 소나무가 있었다고 해서 불린 이름으로 전한다. 이 주변에는 공항이 확장되면서 이주를 하게 된 사람들이 정착해서 생긴 월성마을과 명신마을이 있다. 월성마을로 이어지는 **월성로**는 용문로와 서광로를 연결한다. 월성마을은 예전 수근동과 도두리 일부 주민들이 이주한 마을이다.



월성마을

로를 푸는 곳으로 이용했을 것이다.

공항로와 월성로 사이에 있는 명신1길은 명신마을로 연결되는 길이라는 의미다. 명신마을 역시 비행장 확장 공사 때 사수동 사람들이 정착을 하면서 생겨났다. 예전에는 40가구가 여기에 정착했다고 해서 사십동이라고 불렀던 적도 있다. 과거 명신마을 부근에는 객주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한다. 제주성에서 대정현으로 왕래하는 길은 지금처럼 금방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는 객주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곳으로, 돌아올 때는 피

## 한천로 | 한천

월성로와 이어지는 한천로는 마을 안으로 지나는 한천 옆을 지나는 길이다. 대천, 한내라고도 불리던 한천은 한라산 백록담의 북쪽에서 시작해 20km가 넘는 거리를 이어져 바다와 만난다. 한천의 상류에는 제주를 대표하는 계곡이라고 하는 탐라계곡이 있다. 관음사 탐방로에서 만날 수 있는 탐라계곡은 삼각봉을 중심으로 동쪽 계곡과 북쪽 계곡으로 나뉘어 흐르다 한 곳에서 합쳐진다. 이 계곡에는 이끼폭포를 비롯해 등산객들의 갈증을 풀어주는 용천수인 용진각물과 얼음을 저장하던 창고로 사용했다는 구린굴 등이 이어진다. 중산간을 지나 오등동에 이르면 신선을 만나는 문이라고 하는 방선문을 만난다. 이후 한천은 시내 곳곳을 굽이굽이 흘러 용의 전설이 전해오는 용연까지 이어진다. 독특한 경관을 보여주는 한천은 과거에는 여러 샘물들이 있어 주변에 터를 잡고 살던 사람들에게 긴요한 식수와 생활용수로 이용되기도 했다.

## 오라로/월구길/동성길 | 월구마을과 동성마을

월성로 남쪽으로는 오라로가 이어진다. 오라로는 오라1동, 2동, 3동을 거치는 오라동의 중심도로이다. 원도심과 신제주 사이에 위치한 오라동은 아직까지 도시개발이 덜 이루어져 옛 길의 모습들을 간직하고 있다. 오라1동에는 모오마을과 공설마을이 오라2동에는 사평마을, 연미마을, 정실마을, 동성마을이, 오라3동에는 월구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그 중 월구길이 지나는 월구마을(月龜洞)은 과거 중대이굴로 불렸다. 이곳은 세 부자와 관련된 전설이 전해온다. 월구마을 북동쪽에 드라리라고 하는 마을에 남부럽지 않게 사는 세 부자가 있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시주를 받으러 부자의 집을 찾았는데, 부자는 스님을 문전박

대를 했다고 한다. 껌껌하게 생각한 스님은 마을의 한 밭에 있는 우물을 파서 사용하면 마을에 더욱 복이 많이 찾아올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부자들은 그 말을 믿고 스님의 말대로 그곳에 연못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 후로 마을에는 나병환자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연못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마을을 떠나 결국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동성마을의 이름을 반영한 **동성길**은 마을 안을 가로지르며 서광로와 연삼로를 연결한다. 종합경기장의 서쪽에 위치한 동성마을은 제주 공항이 확장되면서 사수동 사람들이 정착한 마을이다. 당시 철거되기 전까지 마을에 마치 막으로 남아 있던 사람들은 이주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동성마을 자리로 이주하기로 결정을 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했다. 그리고 고향의 맥을 잇고, 동쪽에 큰 마을을 이룩하여 한마음 한 뜻으로 잘 사는 마을을 만들어보자는 의미로 마을 이름을 동성마을이라 정했다고 한다.

## 사평2길 / 연미길 | 사평마을과 연미마을

연삼로의 남쪽으로 이어지는 **사평2길**은 사평마을로 향하는 길이다. 사평마을이 언제 설촌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350년 전에 연미마을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주하여 살게 되면서 마을이 생겨났다고 알려져 있다. 이곳에는 광해군 때 인목대비 폐비에 반대해서 제주에 유배 온 간웅 이익의 후손 이중발의 묘가 있다. 간웅 이익은 유배 당시 말을 바쳐 현마공신의 벼슬을 받은 김만일의 딸과 가정을 이루었다고 한다. 이익은 해배가 된 후 제주를 떠났지만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제주에 머물렀다. 이익의 후손인 이중발은 제주에 대를 이어 유배를 왔던 김진구, 김춘택 부자와 친하게 지냈다. 이중발은 이들에게서 학문을 익혔는데, 김춘택은 그를 굴림재자(橘林才子)라고 할 정도로 그의 뛰어난 재주를 높이 샀다. 이후 이중발은 사평마을에 정착해서 후학을 길렀다고 알려져 있다. 그의 후손 중에 이기온은 조선말기 유배인 최익현과 교류하면서 유배인과의 인연을 이어나가기도 했다.

사평마을 서쪽으로 이어지는 **연미길**은 연미마을로 향하는 길이다. 옛날에 마을에 불이 자주 일어나 화기를 누르기 위해 연못을 만들었고, 이 연못의 물맛이 좋아 연미마을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연미마을에는 과거 선비들이 나라에 상이 나면 모여서 북향사배를 했던 커다란 바위가 있다. 이곳은 조선태라고 불리는데 일본에 의해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이용호를 비롯한 12명이 집의계를 조직하고, 조선의 치욕을 설원한다는 뜻으로 조선태라 불렀다. 그들이 보여주었던 나라에 대한 생각은 제주 사람들에게 이어지면서 만세운동과 해녀항일운동의 항일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연미마을에서는 집의계와 관련한 기념 행사를 열어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있다.